

2026-04-19 주일

공지사항

1. 지난3월 교무금 420불, 봉헌금은 169불 이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교무금을 회계 정다운 수산나 자매님께 납부해주세요. 교무금은 우리 공동체의 운영비로 감사히 쓰이고 있습니다. 낙스빌 공동체를 위하여 쓰이는 교무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공동체 운영을 위해 매월 책정하신 교무금을 봉헌해주시길 바랍니다.
2. 4월에 축일을 맞이한 교우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4/13 하손 마틴 에터슨 4/18 김민아 아지아 4/23 George Brumilk 4/29 김혜정 카타리나
3. 2026년 부터는 공동체 모두가 식사와 전례 봉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봉사 계획표는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봉사 계획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신 날짜를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4. 지난달부터 공동체 어린이 복사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사단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총무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오스딩 신부님께서 보내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KKCC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오늘의말씀 카카오톡 단체톡방은 아래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도신부 : 이영승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catholicknox/hom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kcatholic

홈페이지



페이스북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2,14.22~33

오순절에,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22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23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4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26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27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30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32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33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1-2ㄴ과 5.7-8.9-10.11(◎ 11ㄴ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뉘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1,17-21

사랑하는 여러분, 17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19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워한 것입니다.

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뵈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13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살피 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 공직자들을 지켜 주시어,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이겨 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3.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곳곳이 이겨 내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이가 참된 배려로 그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저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하소서.

영성체송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